

2020
시나공

시험에
나오는 것만
공부한다

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(1, 2, 3급)

한능검

주제별

암기표

| 구분 | 구석기 시대 | 신석기 시대 | 청동기 시대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도구 | 덴석기 - 주먹도끼, 찌르개, 찌개, 긁개, 밀개, 스페찌르개 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간석기: 돌괭이, 돌보습, 돌 낫과 갈돌, 갈판 등 제작 토기: 빗살무늬 토기(식량의 조리와 저장) 가락바퀴, 뼈바늘: 옷과 그물 제작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청동기: 비파형 동검, 거친 무늬 거울 등 간석기: 반달돌칼 등 토기: 민무늬 토기 등 |
| 경제 | 채집, 사냥, 물고기잡이 | 농경과 목축 시작, 물고기 잡이와 사냥 지속 | 일부 저습지에서 벼농사 실시 |
| 주거 | 이동 생활 → 동굴, 막집 | 정착 생활 → 움집에서 정착 생활 | 들판을 끼고 있는 구릉이나 강가에 취락 형성 |
| 사회 | 평등 사회 | 씨족 중심의 부족 사회, 평등 사회 | 사유 재산과 계급 발생, 군장 출현 |
| 주요 유적 | 경기 연천 전곡리, 충남 공주 석장리, 충북 단양 수양개 | 서울 암사동, 제주 고산리 | 부여 송국리 |

| 나라 | 특징 | |
|--------|---|--|
| 고조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원전 4세기~기원전 3세기경: 중국의 연과 대립 → 기원전 3세기경: 부왕·준왕 등이 왕위 세습, 상·대부·장군 등의 관직 설치 위만이 연에서 고조선으로 이주 →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 차지(기원전194), 한반도 남부의 진과 중국의 한 사이에서 중계 무역 전개, 철기 본격적 수용 범금 8조: 일부가 전해짐(생명·노동력 중시, 노비 존재) 멸망: 한 무제의 침략으로 멸망(기원전 108) → 한의 군현 설치 | |
| 부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치: 마가·우가·저가·구가 등이 사출도 다스림 풍습: 순장, 영고(12월, 제천 행사), 소를 죽여 그 굶으로 짐을 침(침복) | |
| 고구려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치: 5부족 연맹체, 제가 회의를 통해 중대 범죄자 처벌 풍습: 서옥제, 형사취수제, 동맹(10월, 제천 행사) | |
| 옥저, 동예 | 옥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구려에 예속, 군장(읍군, 삼로)이 부족 지배 민머느리제, 가족 공동 무덤(골장제) |
| | 동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특산물(단궁, 과하마, 반어피), 족외혼, 책화(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노비나 소, 말로 배상), 무천(제천 행사, 10월) |
| 삼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치: 천군(제사장), 소도(신성 지역), 군장(신지, 읍차)이 부족 지배 풍습: 계절제(5월, 10월) | |



여러 나라의 성장

| | |
|-------|--|
| 고구려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국원왕(331~371): 백제의 공격을 받아 평양성에서 전사 소수림왕(371~384): 불교 수용(전진, 순도), 태학 설립, 율령 반포 광개토대왕(391~412): 만주 지역(후연 등) 정복, 신라에 침입한 왜 격퇴, 영락 연호 장수왕(412~491): 남진 정책 추진, 평양 천도, 한성 함락(한강 유역 확보, 백제 개로왕 전사), 광개토대왕릉비 건립 |
| 백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근초고왕(346~375): 평양성 공격(고국원왕 전사), 왕위의 부자 상속 확립, 마한의 잔여 세력 정복, 『서기, 편찬(고흥)』 침류왕(384~385): 동진으로부터 불교 수용 무령왕(501~523): 22담로에 왕족 파견 성왕(523~554): 사비로 천도, 국호 ‘남부여’로 변경,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 유역 일부 일시 수복(→ 신라에 빼앗김),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 |
| 신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내물왕(356~402): 김씨 왕위 세습, 마립간 칭호 사용, 광개토 대왕의 도움으로 왜의 침입 격퇴 지증왕(500~514): 신라 국호, 왕호를 마립간에서 왕으로 변경, 우산국 복속(이사부), 동시전 설치 법흥왕(514~540): 상대등·병부 설치, 율령 반포, 불교 공인(이차돈의 순교), 공복 제정, 골품제 정비, 금관가야 병합, ‘건원’ 연호 사용 진흥왕(540~576):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, 한강 유역 차지, 대가야 정복, 단양 신라 적성비, 순수비 건립 |
| 가야 연맹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심 세력: 김해의 금관가야(시조 김수로)가 연맹 주도 경제: 철을 낙랑군과 왜 등에 수출 쇠퇴: 광개토 대왕이 이끈 고구려군의 공격으로 쇠퇴(이후 대가야가 연맹 주도) 멸망: 법흥왕 때 금관가야, 진흥왕 때 대가야 멸망 |

| 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|--|
| 통일 신라 | 무열왕 | 진골 출신으로 왕위에 오름, 백제 멸망, 무열왕 직계 자손이 해공왕 때까지 왕위 세습 |
| | 문무왕 | 삼국 통일 달성(676) , 민족의 통합 도모(옛 고구려와 백제 출신 등용) |
| | 신문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김흠돌 등 진골 귀족 세력 숙청: 왕권 강화, 진골 귀족 세력 약화 • 국학 설립: 유학 교육 실시 • 9주 5소경의 지방 행정 제도 정비 • 관료전 지급, 녹읍 폐지: 진골 귀족의 경제 기반 약화 도모 • 감은사지 건립(for 문무왕) → 만파식적 설화 |
| | 경덕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학을 태학감으로 변경 • 지방 행정 구역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바꿈(한산주 → 한주 등) |
| | 통치 체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집사부와 그 장관인 시중의 권한 강화 • 사정부(관리 비리 감찰) 설치 • 상수리 제도 시행: 지방 세력가나 자제를 일정 기간 수도에 거주하게 함 • 9서당(중앙군) 10정(지방군) (신문왕) |
| 발해 | 고왕 (대조영) | 대조영 이 고구려 유민 등과 함께 동모산 에서 건국(698) |
| | 무왕 | 장문휴를 보내 산동 지방의 등주 공격, 인안 연호, 대문예가 흑수 말갈 공격 |
| | 문왕 | 당과 교류, 3성 6부 정비, 대흥 연호, 상경 용천부 천도 |
| | 선왕 | 5경 15부 62주의 지방 행정 제도, 발해 최대 영토 확보(이후 해동성국이라 불림) |
| | 멸망 |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(926) |
| | 통치 체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앙: 3성 6부(6부의 명칭 유교식), 주자감(유학) • 지방: 5경 15부 62주 |

|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|
| 신라 말의 상황 | 중앙 정치 문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진골 귀족들 사이에 왕위 쟁탈전 전개: 해공왕 피살 이후 150여년간 20여 명의 왕 교체 → 왕권 및 지방 통제력 약화 • 김헌창의 난(822): 웅주 도독 김헌창이 일으킴 • 장보고의 난(846): 신문왕의 즉위를 도움, 자객에 의해 제거 |
| | 농민 봉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진성여왕 때 원종과 애노의 봉기(889) 등 발생 |
| | 새로운 세력의 성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호족: 성주·장군을 지쳐, 지방의 행정권과 군사권 장악(반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) • 최치원: 빈공과에 합격, 「토황소격문」으로 당에서 이름을 떨침, 귀국하여 진성여왕에게 시무책 10여조 제시, 계원필경 등 남김 • 6두품 세력: 골품제 사회 비판, 지방 호족과 연계하여 새로운 사회 건설 모색 |
| 후삼국의 성립 | 후백제(900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국: 견훤이 완산주(전주)에 도움 • 발전: 후당, 오월에 사신 파견 • 멸망: 경주를 습격하여 경애왕을 죽게 함, 아들 신검에 의해 견훤이 금산사에 유폐됨 → 일리천 전투에서 후백제군이 고려에 멸망(936) |
| | 후고구려 (901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국: 신라의 왕족 출신으로 양질의 휘하에서 세력을 키운 궁예가 송악(개성)에 도움 →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천도, 국호를 태봉으로 바꿈 • 발전: 광평성 등 각종 정치 기구 마련 |

| | | |
|--------|--|---|
| 태조(왕건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후백제 정벌하고 후삼국 통일(936), 발해 유민 포용(대광현) • 민생 안정: 혹창(빈민 구제) 설치, 조세 인하(10분의 1로 인하) • 복진 정책: 서경 중시, 영토 확장(청천강까지 확보) • 호족 정책: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 실시, 혼인 정책, 왕씨 성 하사 • 훈요 10조(후대 왕에게 정책 방향 제시), 『정계』, 『계백료서』(관리가 지킬 규범) | |
| 광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노비안검법 시행: 공신 및 호족 세력의 경제력·군사력 약화 • 과거제 실시: 쌍기의 건의로 실시 • 황제라 칭하고 독자적 연호(광덕, 준종) 사용 • 공복 제정, 공신 및 호족 세력 숙청 | |
| 성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승로의 시무 28조 수용 → 유교 통치 이념 확립 • 체제 정비: 중앙 관제 2성 6부 정비, 지방에 12목 설치(지방관 파견), 향리제 마련 | |
| 공민왕 | 왕권 강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방 폐지 • 전민변정도감 설치(신돈 등용) →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 약화 • 성균관 및 과거제 정비 |
| | 반원 자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철 등 친원 세력 숙청,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,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영토 회복, 관제 복구, 몽골풍 금지 |

|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|
| 거란과의 관계 | 1차 침입(993) | 소손녕의 침입 → 서희가 외교 담판으로 강동 6주 확보 |
| | 2차 침입(1010) | 강조의 정변, 양규의 활약 |
| | 3차 침입(1019) | 강감찬, 귀주 대첩에서 활약 |
| | 결과 및 영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려, 송, 요의 세력 균형 개경에 나성, 국경 지역에 천리장성 축조 |
| 여진의과의 관계 | 여진 정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2세기 완연부가 부족 통합, 국경까지 남하 별무반: 윤관의 건의로 편성(1104), 신기군(기병)·신보군(보병)·항마군(승병)으로 구성 동북 9성: 여진을 정벌한 후 축조함 → 여진의 간청 및 수비의 곤란 등으로 1년여 만에 돌려줌(1109) |
| | 금과의 군신 관계 수립 | 금을 세운 여진이 고려에 군신 관계를 요구함 → 이자겸 등 집권 세력이 군신 관계 요구 수용 |
| 몽골과의 관계 | 몽골의 침입과 항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강동성의 역: 거란족 토벌 때 강동성에서 몽골과 처음 접촉(1219) 1차 침입: 몽골 사신 저고여 피살을 구실로 침입(1231) 2차 침입: 강화도로 천도(최우), 처인성 전투(김윤후가 살리타 사살) |
| | 대몽 항쟁의 영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팔만대장경 제작: 대장도감 설치, 현재 해인사 보관 문화재 소실: 초조대장경과 황룡사 9층 목탑 등 소실 삼별초: 개경 환도에 반대하며 배중손과 김통정 등이 진도(옹장성)와 제주도(향파두성)로 근거지를 옮기며 항쟁(1270~1273) |

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

| | 이자겸의 난(1126) |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(1135) |
|----|--|--|
| 배경 | 외척 세력인 이자겸 일파의 권력 독점 → 인종과 측근 세력이 이자겸 제거 시도 | 묘청, 정지상 등 서경 세력(서경 천도, 청제 건원, 금 정벌 주장)의 개혁 추진 → 김부식 등 개경 세력의 반발 |
| 전개 | 이자겸, 척준경 등이 난을 일으켜 정권 장악 → 인종이 척준경을 포섭해 이자겸 제거, 척준경 축출 | 서경 천도 시도가 좌절되자 묘청 등이 서경을 근거지로 난을 일으킴(국호 대위, 연호 천개, 1135) →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이 진압 |
| 결과 | 문벌 귀족 사회의 붕괴 촉진 → 금의 군신 관계 요구를 당시 집권자였던 이자겸이 수용 | 문벌 귀족 사회의 동요 심화 |

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|
| 무신 정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배경: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 • 무신 정권의 수립: 이의방·정중부 등 무신이 정변을 일으켜 정권 장악(1170) →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 행사 • 무신 간의 권력 쟁탈전: 이의방 → 정중부 → 경대승 → 이의민 → 최충헌 • 반발: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의 난(1173), 서경 유수 조위충의 난(1174) |
| 최씨 무신 정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충헌 집권 이후 60여 년 동안 최씨가 권력 장악 • 최충헌: 봉사 10조(개혁안) 제시, 교정도감(최고 권력 기구) 설치 • 최우: 정방(인사권 장악) 설치, 삼별초 설치 |
| 무신 정권 시기의 농민·천민 봉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배경: 무신 정권의 수탈 심화, 중앙 정부의 지방 통제 약화 • 농민 봉기: 망이·망소이의 봉기(공주 명학소), 김사미·효심의 봉기(경상도 운문·초전) • 천민 봉기: 사노비 만적이 개경에서 봉기 모의 |

| | | |
|----|-----------|--|
| 경제 | 농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려 말 일부 지역에 모내기법 보급 원으로부터 「농상집요」가 소개(이암), 목화 전래(문익점) |
| | 수공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기: 관청 수공업(공장안에 등록된 수공업자가 생산), 소 수공업(소 주민이 생산하여 관청에 공물로 납부, 광물·자기 등) 후기: 사원 수공업(승려, 노비가 생산), 민간 수공업(가내 수공업) |
| | 상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전: 개경에 시전 설치, 경시서를 통해 상업 활동 권장 관영 상점: 대도시에 서적·약·차 등을 판매하는 관영 상점 설치 화폐: 건원중보(성종), 속종 때 삼한통보, 해동통보, 은병(활구) 등 발행 무역: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, 송·아라비아 상인 등 왕래 |
| | 고려의 토지 제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역분전: 고려 태조가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지급 전시과: 문무 관리 등에게 토지(전지, 시지)를 지급(수조권 행사) |
| 사회 | 사회 제도 | <p>흑창(태조) → 의창(빈민 구제 기관), 상평창(물가 조절 기관), 동·서 대비원, 혜민국, 제위보 등</p> |

| | |
|----|---|
| 태종 | 두 차례 왕자의 난을 통해 실권 장악, 6조 직계제 실시, 호패법 실시, 신문고 설치, 사간원 독립 (대신 견제) |
| 세종 | 의정부 서사제 실시, 집현전 설치, 4군 6진 개척(사민 정책), 대마도 정벌(이종무) |
| 세조 | 계유정난으로 정권 장악, 6조 직계제 실시, 집현전 철폐, 경연 폐지, 이시애의 난 진압, 직전법 실시 |
| 성종 | 홍문관 설치(집현전 계승), 「경국대전」 완성 |
| 영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탕평파 중심으로 정국 운영, 탕평비 건립(성균관) • 균역법 시행: 군포를 1년에 2필에서 1필로 줄여줌 • 신문고 제도 부활, 청계천 준설(준천) • 「속대전」, 「동국문헌비고」 편찬 |
| 정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규장각 육성, 초계문신제 실시, 장용영(친위 부대) 설치, 수원 화성 축조 • 서얼 차별 완화(서얼 출신 이덕무, 박제가 등 규장각 검서관 임명) • 통공 정책: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들의 금난전권을 폐지한 정책 • 「대전통편」, 「무예도보통지」, 「동문회고」 등 편찬 |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무오사화(연산군, 1498) | 김종직의 조의제문(김일손의 사초)이 발단이 됨 |
| 갑자사화(연산군, 1504) | 폐비 윤씨 사사 사건 계기 |
| 조광조와 기묘사화 (중종, 1519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조광조의 개혁: 현량과 실시, 소격서 폐지, 소학 보급, 위훈 삭제(일부 훈구 세력의 공훈 삭제) • 기묘사화: 훈구 세력이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 세력 제거 |
| 을사사화(명종, 1545) | 외척인 윤임(대윤)과 윤원형(소윤) 세력 대립 → 윤임과 연결된 사림 세력 피해 |

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와 임진왜란

| 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|---|
|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 | 명과의 관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태조: 정도전을 중심으로 요동 정벌 추진 • 태종 대 이후: 사대 외교 추진, 선진 문물 수용 |
| | 여진과의 관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강경책: 세종 때 4군 6진 지역 개척, 사민 정책(삼남 지방 주민 북방 이주) • 회유책: 경성, 경원(국경 지역)에 무역소 설치하여 교역 허용 |
| | 일본과의 관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강경책: 이종무가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 정벌(세종 때) • 회유책: 3포(부산포, 염포, 제포) 개방, 계해약조 체결(세종, 제한된 범위 교역 허용) |
| 임진왜란 | 배경 | 일본의 전국 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대외 침략 욕구 |
| | 전개 | 왜군의 조선 침략 → 선조가 의주로 피란하면서 명에 지원군 요청 → 조명 연합군 평양성 탈환 → 휴전 회담(결렬) → 정유재란(1597, 왜군 재침입) → 이순신, 명량 해전에서 왜군 격퇴 →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망, 왜군 철수, 노량 해전(이순신 전사) |
| | 특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순신과 수군 활약: 한산도 대첩 승리 등으로 전라도 곡창 지대 수호 • 의병 활약: 광재우, 고경명 등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들이 지형 활용 |
| | 통신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유약조(1609):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국교 재개 • 통신사: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파견, 조선 문화 일본 전파(문화 교류),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재 |

조선의 토지 제도

| | |
|-----------------|--|
| 과전법 (고려 공양왕) | 전·현직 관리에게 토지의 수조권 지급, 지급 대상 토지를 경기 지역으로 한정, 원칙적으로 세습 불가(관리 사망 시 일부 토지는 수신전·출양전 등의 명목으로 유가족에게 세습) |
| 직전법(세조) | 세습되는 과전의 증가로 관리에게 지급할 토지 부족 →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 지급, 수신전과 출양전 폐지 |
| 관수관급제(성종) | 관리의 수조권 남용 심화 수취(농민 불만 고조) → 관청이 조세를 거둔 후 관리에게 지급 |

호란과 양난 이후 청과의 관계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정묘호란 (1627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배경: 인조반정(1623) → 광해군 축출, 인조 즉위, 서인 집권 → 친명 배금 정책 추진으로 후금 자극 • 전개: 후금의 조선 침략 → 인조가 강화도 피신, 정봉수(용골산성), 이립 등 항전 → 후금과 화의 | |
| 병자호란 (1636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배경: 후금이 청으로 국호 변경 후 조선에 군신 관계 요구 → 조선이 군신 관계 거부(주화론과 주전론 대립) • 전개: 청의 조선 침략 →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란하여 항전, 주화론(청과 화의), 주전론(청과 전쟁) 대립 • 결과: 삼전도에서 청에 항복, 청과 군신 관계 체결, 소현세자·봉림대군 등이 청에 인질로 끌려감 | |
| 양난 이후 대청 관계 | 복벌 운동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내용: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오랑캐에게 당한 치욕을 씻기 위해 청을 정벌 하자는 주장 • 추진: 청에 대한 치욕을 씻기 위해 청을 정벌하려는 운동 → 효종이 송시열 등을 등용하여 복벌 추진 • 결과: 실현되지 않음, 청의 요구로 러시아와의 전투에 조총 부대 파견(나선 정벌) |
| | 북학론 | 연행사 를 통해 청과 교류 → 18세기 이후 일부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청의 문물을 수용하자는 북학론 제기 |
| | 백두산 정계비 | 속중 때 조선과 청 사이에 국경 분쟁 발생 → 압록강과 토문강을 경계로 청과의 국경을 확정 하고 백두산정계비 건립(1712) |

16

비변사

| | |
|----|---|
| 설치 | 15세기 여진족과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임시 기구로 설치 |
| 변천 | 을묘왜변 이후 상설 기구화 → 임진왜란을 거치며 국정 총괄 기구로 성장 → 세도 정치 시기 외척 세력의 기반이 됨 |
| 영향 | 의정부와 6조의 기능 약화, 흥선 대원군 집권기에 혁파됨 |

17

예송과 환국

| | |
|----|--|
| 예송 | 현종: 효종과 효종비 사후에 인조의 계비인 자의 대비의 복상 기간을 둘러싸고 서인과 남인 사이에 전례 문제인 예송 발생 → 결과적으로 서인을 대신하여 남인 집권 |
| 환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환국: 정국을 주도하던 봉당이 교체되면서 정국이 급격하게 바뀌는 상황 • 숙종이 여러 차례 환국 단행(서인과 남인이 번갈아 집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신환국(1680): 서인이 남인(허적 등)을 몰아내고 정권 장악 → 서인이 노론(강경파)과 소론(온건파)으로 분화 - 기사환국(1689): 희빈 장씨의 아들(훗날 경종)의 원자 책봉을 둘러싸고 노론과 남인 대립 → 남인 집권, 인현왕후 폐위, 송시열(노론) 사사 - 갑술환국(1694): 인현왕후 복위, 희빈 장씨 사사 → 노론 집권 |

세도 정치 시기의 상황

| | |
|----|--|
| 배경 | 정조 사후 어린 순조가 즉위하면서 일부 외척 세력이 권력 장악 |
| 전개 | 순조(정순왕후 수렴 청정), 헌종, 철종의 60여 년 동안 안동 김씨, 풍양 조씨 등 일부 가문이 권력 독점 → 비변사의 고위 관직 독점 |
| 폐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매관매직(돈을 받고 관직을 파는 행위)의 성행 • 삼정 문란: 탐관오리가 수취 제도를 악용해 농민 수탈 → 전정·군정·환곡의 폐단 심화 |

홍경래의 난과 임술 농민 봉기

| | 홍경래의 난(1811) | 임술 농민 봉기(1862) |
|----|--|--|
| 원인 | 평안도(서북) 지역민에 대한 차별과 지배층의 수탈 | 지배층의 수탈(삼정의 문란) |
| 전개 | 홍경래가 신흥 상공업 세력, 몰락 양반, 광산 노동자, 영세 농민 등을 규합하여 봉기(우군 척, 이희저, 홍총각 등) → 청천강 이북 지역(가산, 선천, 광주 등) 점령 → 정주성에서 관군에 패배 | 단성, 진주 농민 봉기(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탐학, 유계춘 중심으로 봉기)를 거치면서 전국으로 확산 → 박규수가 안행사로 파견,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기 위해 삼정이정청 설치 |

조선 후기 수취 체제 개편(대동법, 균역법)

| | | |
|-------------|----|--|
| 대동법 | 배경 | 16세기 이후 방납의 폐단 심화 → 농민의 부담 증가, 정부의 재정 악화 |
| | 시행 | 광해군 때 이원익의 건의로 경기도에 처음 실시 (1608, 선혜청 설치), 김육의 건의로 호서 지방 확대 , 숙종 때 평안도와 함경도 등을 제외한 전국에서 실시(방납 관련자들과 지주층의 반대) |
| | 내용 | 가호에 부담하던 공납을 토지 결수에 따라 쌀(1결당 12두), 무명이나 베, 동전 등으로 징수 |
| | 결과 | 토지가 적거나 없는 농민의 부담이 크게 감소, 관청에 물품을 납품하는 공인 등장 ,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촉진 |
| 균역법 (영조) | 배경 | 군적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고 군포 징수 과정에서 규정보다 많이 징수하는 문제 발생(백골징포, 황구첨정 등) |
| | 내용 | 농민에게 군포 1필 징수 → 줄어든 군포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결작(토지 1결당 쌀 2두)과 선무군관포(1년 1필), 어장세·염전세·선박세 등 징수 |
| | 결과 | 농민의 군포 부담 일시적 감소, 납속책과 공명첩 발급 등으로 면역자가 증가, 군포 부담 회피 경향 등으로 폐단 지속 |

조선 후기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

| | |
|--------|--|
| 농업 발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모내기법(이앙법) 확산 → 노동력 절감, 단위 면적당 생산력 증대, 벼와 보리의 이모작 확대 → 1인당 경작 면적이 확대되어 넓은 토지를 경작하는 광작 확산 • 인삼·면화·담배·고추·채소 등의 상품 작물 재배 확대 • 지대 납부 방식의 변화: 일부 지역에서 타조법 대신에 도조법 등장 |
| 수공업 발달 | 민영 수공업 발달, 선대제 수공업 성행 |
| 광업의 발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민영 광산 확대, 정부가 은광 설치를 허가하고 세금을 걷는 설점수세제를 실시(17세기 중반) • 잠채(민간인이 몰래 광산 채굴) 성행, 상인 몰주에게 자금을 지원받아 덕대가 광산 경영 담당 |
| 상업 발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상의 성장: 송상(개성, 사개치부법, 송방 설치), 만상(의주), 내상(동래, 왜관) 성장 → 일부 사상은 독점적 도매상인인 도고로 성장 • 화폐 유통: 조선 후기에 상평통보가 발행되어 전국적으로 유통, 전황 발생 • 대외 무역: 개시 무역(공무역)과 후시 무역(사무역) 발달 |

흥선 대원군의 개혁 정치

| | |
|----------|--|
| 왕권 강화 정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어린 고종의 즉위로 흥선 대원군 집권 • 안동 김씨 등 외척 세력의 영향력 약화 노력 • 비변사의 기능 축소(이후 폐지) → 의정부의 기능 회복, 삼군부 부활 • 통치 체제 정비를 위해 「대전회통」, 「육전조례」 등 편찬 |
| 민생 안정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정: 양전 사업 실시, 토지 대장에서 누락된 토지에 조세 부과 • 군정: 호포제 실시로 양반에게도 군포 징수 • 환곡: 폐단 개선을 위해 마을 단위로 사창제 실시 |
| 서원 철폐 | 전국의 서원을 47개소만 남기고 철폐(만동묘 등) → 국가 재정의 확충, 유생들의 반발 |
| 경복궁 중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사비 마련을 위해 기부금인 원납전 강제 징수, 고액 화폐인 당백전 발행 • 결과: 당백전 남발로 물가 폭등, 과중한 노동력 동원으로 민심 악화 |

통상 수교 거부 정책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제너럴 셔먼호 사건 (1866) |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통상 요구, 백성 살상 → 평양의 관리와 백성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워 침몰시킴 |
| 병인양요(1866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배경: 흥선 대원군이 프랑스를 이용하여 러시아를 견제하려 하였으나 실패, 병인박해(1866) 발생 • 전개: 병인박해를 구실로 프랑스 로즈 제독의 함대가 강화도 침략 → 문수산성에서 한성군 부대, 정족산성에서 양현수 부대가 항전 → 프랑스군이 외규장각 도서(의궤 등) 약탈하여 철수 |
| 남연군 묘 도굴 사건 (오페르트 사건, 1868) |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통상을 요구하였으나 조선 정부가 거절 → 오페르트 등이 흥선 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려다 실패 |
| 신미양요(1871) | 미국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(1866)을 빌미로 통상 요구 → 조선 정부 거부, 미국 함대의 강화도 침략 → 광성보에서 어재연 부대의 항전 → 흥선 대원군이 전국 각지에 척화비 건립(통상 수교 거부) |

| | 임오군란(1882) | 갑신정변(1884) |
|---------|---|--|
| 배경 | 신식 군대 별기군 창설,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임오군란 이후 청의 내정 간섭으로 개화 정책 후퇴 → 급진 개화파의 불만 고조, 급진 개화파의 입지 약화(차관 도입 실패) 조선에 주둔한 청군 일부 철수, 일본이 군사적 지원 약속 |
| 전개 | 구식 군인 봉기 , 도시 빈민 합세 → 일본 공사관 습격, 명성 황후 피신 → 흥선 대원군의 재집권(별기군 폐지, 5군영 부활, 통리기무아문 폐지 등 개화 정책 중단) → 청군의 개입(군란 진압, 흥선 대원군 청으로 납치) | 급진 개화파(김옥균, 박영효, 홍영식 등)가 우정충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민씨 고관들을 살해하고 권력 장악 → 개혁 정강 발표(인민 평등권, 재정 호조 일원화) → 청의 개입과 일본군의 철수로 3일 만에 실패 , 김옥균, 박영효 등은 일본으로 망명 |
| 결과 및 영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청의 내정 간섭: 청이 조선에 마건상과 윌렌도르프를 고문으로 파견하여 내정 간섭 제물포 조약 체결(일본 공사관의 경비병 주둔 인정) 조·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체결(1882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청의 내정 간섭 심화: 민씨 세력의 재집권, 개화 세력의 약화 한성 조약: 조선이 일본 공사관 신축 비용을 부담 텐진 조약: 청·일 양국 군대의 동시 철수, 향후 조선 파병 시 상호 통보 규정 |

| 구분 | 1860년대 | 1870년대 | 1880년대 | 1890년대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|
| 배경 | 서양 열강의 통상 요구 | 강화도 조약 체결 | 정부의 개화 정책 추진, 수신사 김홍집이 조선책략(황준헌) 유포 | 을미사변, 을미개혁 때 단발령 공포 |
| 활동 | 통상 반대 운동 전개, 척화주전문 주장 | 개항 반대 운동 전개, 왜양일체론 주장 |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소를 올려 미국과의 통상 수교 반대 | 의병 운동 |
| 주요 인물 | 이항로, 기정진 | 최익현(지부복궐화 의소) 등 | 이만손, 홍재학 | 유인석, 이소응 |

| | |
|----------|--|
| 교조 신원 운동 | 동학교도가 교조 최제우의 신원 등 요구 → 삼례 집회, 서울 복합 상소, 보은 집회 등 개최 |
| 고부 농민 봉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배경: 고부 군수 조병갑이 만석보를 쌓게 하고 세금 강제 징수 • 전개: 전봉준 등이 사발통문을 돌려 봉기 호소 → 농민들의 고부 관아 점령, 만석보 파괴 → 후임 군수의 회유로 농민들 자진 해산 |
| 1차 봉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배경: 안핵사 이용태가 고부 농민 봉기 주모자 등을 탄압 • 경과: 무장에서 농민군이 봉기하여 고부를 다시 점령 → 백산에서 4대 강령과 격문 발표 → 황토현과 황룡촌에서 관군에 승리 → 전주성 점령 → 정부와 동학 농민군이 전주 화약 체결 → 동학 농민군이 전라도 각지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폐정 개혁안(탐관오리 징계 등) 실천 |
| 2차 봉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배경: 전주 화약 체결 후 조선 정부가 청군과 일본군에 철수 요구 →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후 내정 개혁을 강요 • 전개: 동학 농민군의 재봉기 → 논산에서 북점과 남점이 합류하여 서울로 북상 →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 농민군이 일본군과 관군에게 패배(1894. 11.) → 전봉준 등 동학 농민군 지도자 체포, 농민군 잔여 세력 진압 |
| 성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반봉건: 신분제 개혁 등 정치·사회 개혁 요구 • 반외세: 일본의 침략과 내정 간섭에 저항 |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<p>제1차 갑오개혁 (1894)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본군이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개혁 강요 → 제1차 김홍집 내각 수립, 군국기무처(초정부적인 정책 결정) 설치 및 개혁 추진 • 정치: 6조를 8아문으로 개편, 과거제 폐지 • 경제: 탁지아문으로 재정 일원화, 은본위 화폐 제도 확립 • 사회: 공·사노비 제도 혁파, 신분제 철폐 등 |
| <p>제2차 갑오개혁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2차 김홍집 내각(김홍집·박영효 연립 내각) 수립, 군국기무처 폐지 → 고종이 국정 개혁의 기본 강령인 홍범 14조 반포 • 내용: 8아문을 7부로 개편, 8도를 23부제로 개편, 재판소 설치, 교육입국 조서 반포, 한성 사범 학교 관제 등 마련 |
| <p>을미개혁 (1895)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배경: 러시아가 주도한 삼국 간섭으로 일본이 라오동 반도를 청에 돌려줌 → 고종과 명성 황후가 친러 내각을 구성하여 일본 견제 → 일본이 명성 황후 시해(을미사변) • 내용: 태양력 사용(11월 17일을 새해 1월 1일로 삼음), '건양' 연호, 단발령 실시 등 |

28

독립 협회(1896~1898)

| | |
|----|---|
| 창립 | 미국에서 서재필 귀국,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독립신문 창간 → 독립군 건립을 명목으로 독립 협회 조직(1896) |
| 목표 | 자주 국권·자유 민권·자강 개혁 추구 → 독립문 건립, 강연회·토론회 등을 통한 민중 계몽 |
| 활동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 저지 • 만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러시아의 이권 침탈 저지(한·러 은행 폐쇄, 용암포 조차 저지, 러시아 재정 고문, 군사 교관 철수 요구) • 관민 공동회를 개최하여 헌의 6조 결의 • 의회 설립 운동 전개 → 중추원 관제 반포(중추원을 의회 형태로 개편) |
| 해산 | 황국 협회의 만민 공동회 습격 → 대한 제국 정부가 군대를 동원하여 만민 공동회 강제 해산 → 독립 협회 해산 |

29

대한 제국과 광무개혁

| | |
|--------------|--|
| 수립 | 고종이 경운궁으로 돌아와 '광무'라는 연호 제정 →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 거행 이후 '대한 제국' 수립 선포 |
| 대한국 국제(1899) | 대한 제국이 자주독립국임을 국내외에 천명하고, 황제의 무한한 군주권 규정 |
| 광무 개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구본신참의 원칙에 따른 점진적 개혁 표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– 원수부를 설치하여 황제가 군대 통솔 – 양전 사업을 통해 토지 소유자에게 지세 발급(지계아문) – 근대적 회사·공장과 시설 마련 지원, 근대 시설 도입(전화, 전차·철도 부설, 통신·교통 시설), 유학생 파견 |

의병 운동과 애국 계몽 운동

| | | |
|----------|--------|--|
| 의병 운동 | 을미의병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배경: 을미사변, 단발령 실시(1895) • 유인석, 이소응 등 유생층이 주도 •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치으로 대부분 활동 중단 |
| | 을사의병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배경: 을사늑약 체결로 외교권 박탈 • 활동: 최익현이 태인에서 거병, 신돌석이 태백산 일대에서 활약 |
| | 정미의병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배경: 고종의 강제 퇴위, 대한 제국의 군대 해산(1907) • 특징: 해산 군인의 가담으로 전투력 강화, 각국 영사관에 의병을 국제법상 교전 단체로 인정할 것 요구 • 연합 의병: 13도 창의군 결성 → 서울 진공 작전 전개(1908) |
| | 호남 의병 | 서울 진공 작전 후에도 활동 지속 → 일제의 ‘남한 대토벌 작전(1909)’으로 위축 |
| 애국 계몽 운동 | 보안회 |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대한 반대 운동 전개 → 철회 성공 |
| | 대한 자강회 | 전국에 지회를 설치, 월보 간행 →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 주도 |
| | 신민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안창호, 양기탁 등 중심의 비밀 결사 • 국권 회복과 공화 정체의 근대 국가 건설 지향 • 오산 학교, 대성 학교 설립, 태극 서관, 자기 회사 운영 • 국의 독립운동 기지 건설로 독립 전쟁 준비(남만주 삼원보에 신흥 강습소 설립) • 105인 사건으로 해산(1911) |

| | |
|------------------|---|
| 임오군란 ~ 청·일 전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조·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체결(1882): 청 상인의 특권 보장(양화진과 한성에 상점 개설 허용, 내지 통상권 인정 등) • 조·일 통상 장정 체결(1883): 일본 상품에 관세 부과, 일본에 대한 최혜국 대우 규정 → 청·일 상인 간 상권 경쟁 심화, 조선 상인 타격 |
| 방곡령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배경: 일본 상인들에 의한 지나친 곡물 유출 → 곡물 가격 폭등 • 전개: 조·일 통상 장정에 따라 함경도와 황해도 등의 지방관이 방곡령 선포 (1889, 1890) → 일본이 규정 위반을 이유로 방곡령 철회 요구 → 방곡령을 철회하고 배상금 지급 |
| 열강의 이권 침탈 | 광산 채굴권(운산 금광 , 미국), 삼림 채벌권(러시아), 철도 부설권(경인선, 경부선, 일본) |
| 화폐 정리 사업 | 일본인 재정 고문 메가타 주도, 백동화를 일본 제일 은행권으로 교환 → 한국인이 설립한 은행과 한국인 상공업자에게 큰 타격 |
| 경제적 구국 운동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상권 수호 운동(1898): 시전 상인이 황국 중앙 총상회 조직 → 청 상인과 일본 상인의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와 철시 운동 전개 • 국채 보상 운동(1907): 김광제 등을 중심으로 대구에서 시작, 국채 보상 기성회 조직, 대한매일신보 등의 후원으로 전국적 확산 |

1910년대 일제의 식민 통치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무단 통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헌병 경찰 제도: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 및 행정 업무 수행, 헌병 경찰은 재판 없이 즉결 처분권 행사(범죄즉결례) • 조선 태형령 제정, 관리와 교원도 제복을 입고 칼을 착용 |
| 기본권 박탈 | 한국인의 언론·집회·출판·결사의 자유 제한, 한국인 발행 신문 폐간 |
| 식민지 교육 | 제1차 조선 교육령 제정(보통 교육, 실업 교육 위주), 사립 학교와 서당 등 민족 교육 기관 탄압 |
| 토지 조사 사업 (1910~1918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토지 조사령 공포(1912), 신고주의 원칙(토지 소유자가 기일 내에 신고)에 따라 소유권 인정 → 신고하지 않은 토지, 국유지 등이 조선 총독부에 편입 • 농민의 관습적 경작권이 부정되고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, 많은 농민이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만주·연해주 등지로 이주 |
| 회사령(1910) | 한국인의 기업 설립과 민족 자본의 성장 억제 목적, 조선 총독에게 회사 설립 허가 및 해산 권한 부여(1920년 폐지) |

1910년대 국내외 독립운동

| | | |
|----|---------------|--|
| 국내 | 독립 의군부 (1912) | 임병찬 등이 고종의 밀명을 받아 조직, 의병 전쟁을 계획하고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보낼 계획 추진, 복벽주의 추구 |
| | 대한 광복회 (1915) | 박상진(총사령) 등이 군대식 조직으로 결성, 친일파 처단과 독립 전쟁 계획 (군자금 모금, 만주에 군관 학교 설립 추진), 국권 회복 후 공화정 형태의 근대 국가 건설 추구 |
| 국외 | 북간도 | 종광단 결성, 서전서숙, 명동 학교 운영 |
| | 호남 의병 | 서울 진공 작전 후에도 활동 지속 → 일제의 '남한 대토벌 작전(1909)'으로 위축 |
| | 서간도 | 삼원보 중심, 경학사 조직, 신흥 강습소 설립(신흥 무관 학교로 개편) |
| | 상하이 | 신한 청년당(1918): 김규식을 파리 강화 회의에 대표로 파견 |
| | 연해주 | 블라디보스토크에 신한촌 형성, 권업회 조직 → 이상설(정통령), 이동휘(부통령)를 중심으로 대한 광복군 정부 수립(1914) |
| | 미주 지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한인 국민회: 장인환·전명운의 의거를 계기로 결성, 외교 활동 전개 대조선 국민군단: 박용만이 하와이에서 결성 → 군사 훈련 전개 |

1930~1940년대 일제의 식민 통치

| | |
|-------------|--|
| 황국 신민화 정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제가 중·일 전쟁 이후 한국인을 침략 전쟁에 동원하고자 민족의식 말살 추진 • 내선일체 강조, 일선동조론 주장 • 황국 신민 서사 암송, 신사 참배, 궁성 요배, 일본식 성명 사용 등 강요 • 소학교의 명칭을 국민학교로 개칭(1941) |
| 식민지 공업화 정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쟁에 필요한 물자의 원활한 공급(병참 기지화) 목적 • 북부 지방에 중화학 공업 집중 육성 → 공업 생산이 북부 지방에 편중 |
| 전시 동원 체제 강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가 총동원법 제정(1938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– 인적 수탈: 지원병제, 징병제, 국민 징용령, 여자 정신 근로령, 일본군 ‘위안부’ – 물적 수탈: 금속류 공출·미곡 공출·식량 배급제 실시 •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(1941)을 통해 독립운동 탄압 |
| 남면 복양 정책 | 일본 방직 산업의 원료 확보를 위해 남부에 면화 재배, 북부에 양 사육 강요 |
| 농촌 진흥 운동 | 소작 조건 개선이나 농가 갱생 계획 수립, 식민지 지배 체제의 안정 추구 |

3·1 운동, 6·10 만세 운동, 광주 학생 항일 운동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<p>3·1 운동 (1919)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배경: 고종의 서거, 민족 자결주의 대두(미국 대통령 윌슨 제창), 도쿄에서 한국인 유학생들이 2·8 독립 선언 발표 • 전개: 종교계(천도교, 기독교, 불교)와 학생 중심 준비 → 민족 대표들이 태화관에서 독립 선언서 낭독, 학생과 시민들이 탑골 공원에서 독립 선언서 낭독 → 주요 도시에서 농촌까지 확산, 국외(간도, 연해주, 일본, 미주 등)로 확산 • 탄압: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 → 제암리 학살 사건, 유관순 등 순국 • 영향: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의 계기, 일제 통치 방식이 무단 통치에서 이른바 문화 통치로 전환, 일제 강점기 최대 규모의 항일 운동 |
| <p>6·10 만세 운동(1926)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개: 사회주의 계열, 민족주의(천도교) 계열, 학생 단체가 순종의 장례일에 맞추어 대규모 만세 시위 계획 → 사회주의 계열과 천도교 계열이 사전 검거 → 학생 단체가 순종의 인산일에 만세 시위 전개 • 의의: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간의 연대 계기(민족 유일당 운동 전개 계기) |
| <p>광주 학생 항일 운동 (1929)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계기: 일본인 남학생이 한국인 여학생을 희롱한 사건을 계기로 한·일 학생 간의 충돌 발생 • 전개: 일본인 학생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 → 11월 3일, 광주 지역 학생이 일본 학생 습격 → 신간회(진상 조사단 파견) 등의 지원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항일 운동으로 확산 (3·1 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 운동) |

물산장려운동, 민립대학 설립운동, 문맹퇴치운동

| | | |
|-------------|----|---|
| 물산 장려 운동 | 배경 | 회사령 철폐(1920),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 움직임 |
| | 전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민족 기업과 자본 보호·육성 목적 • 시작: 평양에서 조만식 등이 조선 물산 장려회 조직(1920) • 활동: 토산품 애용, 금주·금연 등 추진 → ‘내 살림 내 것으로’, ‘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’ 등의 구호 제시 • 한계: 자본가와 일부 상인에게만 이익이 된다며 사회주의 계열에서 비판함 |
| 민립 대학 설립 운동 | 배경 | 2차 조선 교육령 실시로 대학 설립 가능 |
| | 전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작: 이상재 등이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를 조직함(1923) • ‘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’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모금 운동 전개 → 일제의 경성 제국 대학을 설립으로 쇠퇴 |
| 문맹 퇴치 운동 | 전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문자 보급 운동: 조선일보 주도, 「한글 원본」 발간, ‘아는 것이 힘, 배워야 산다’ 구호 • 브나로드 운동: 동아일보 주도, 농촌 계몽 운동을 전개함, ‘배우자, 가르치자, 다 함께 브나로드’ 구호 |

| | |
|----------|--|
| 수립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한성 정부의 정통성 계승,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• 조직: 삼권 분립에 입각한 민주 공화정 → 국무원(행정), 임시 의정원(입법), 법원(사법), 대통령 이승만·국무총리 이동휘 |
| 활동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파리 강화 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 • 연통제(비밀 행정 조직)와 교통국(정보 수집 및 전달·보고, 이통양행) 운영, 독립 공채 발행, 육군 주만 참의부 설치 • 구미 위원부 설치, 한일 관계 사료집 간행, 기관지로 독립신문 발간 |
| 국민 대표 회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배경: 연통제와 교통국 조직 붕괴, 외교 활동의 성과 미흡, 이승만의 국제 연맹 위임 통치 청원 (1919) • 전개: 창조파와 개조파의 대립 → 회의 결렬, 독립운동가 다수 이탈 → 임시 정부의 활동 침체 |
| 체제 변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승만 탄핵 → 박은식이 제2대 대통령으로 선출(1925) → 국무령 중심 내각 책임제(1925) →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(1927) → 주석 중심제(1940) → 주석·부주석제(1944) • 총칭에 정착(1940), 조소앙의 삼군주의에 바탕을 둔 건국 강령 발표(1942) |

1920년대, 1930년대의 국외 독립운동

| 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|
| 1920년대 | 봉오동 전투 (1920) | 대한 독립군(홍범도), 군무 도독부(최진동) 등 독립군 연합 부대가 봉오동에서 일본군 격퇴 |
| | 청산리 대첩 (1920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배경: 봉오동 전투에서 패한 일본군이 대규모 부대를 만주에 파견 • 전개: 북로 군정서(김좌진), 대한 독립군(홍범도) 등 독립군 연합 부대가 청산리 일대(백운평, 완루구, 어랑촌 등지)에서 일본군과 6일간 전투를 벌여 크게 승리 |
| | 간도 참변 (1920) | 봉오동 전투, 청산리 대첩에서 패배한 일제의 보복 → 일제가 간도 지역의 한인에 대한 무차별 학살 자행 |
| | 자유시 참변 (1921) | 청산리 대첩 이후 독립군이 밀산으로 집결 → 러시아령 자유시(스보보드니)로 이동 → 러시아 적군과의 갈등으로 독립군 수백 명 희생 |
| | 3부 통합 운동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3부의 성립(민정 기관과 군정 기관 성격) - 참의부(대한민국 임시정부 직속), 정의부, 신민부 ↓ 2. 미쓰야 협정(1925): 일제와 만주 군벌 사이에 체결된 협약, 독립군 체포·인도 등의 내용에 합의 ↓ 3. 3부 통합 운동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북만주: 혁신 의회 성립 - 한국 독립당, 한국 독립군(지청천) 결성 - 남만주: 국민부 성립 - 조선 혁명당, 조선 혁명군(양세봉) 결성 |
| 1930년대 | 한국 독립군 | 북만주 지역에서 한국 독립군(지청천)의 한·중 연합 작전 → 쌍성보, 사도하자, 대전자령 전투 등에서 승리 |
| | 조선 혁명군 | 남만주 지역에서 조선 혁명군(양세봉)의 한·중 연합 작전 → 영릉가, 흥경성 전투 등에서 승리 |
| | 조선 의용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김원봉 등이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조선 민족 전선 산하에 조직(1938),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독립군 부대 • 일부는 화북 이동 → 조선 의용군으로 개편(조선 독립 동맹의 군사기반), 일부는 김원봉의 지휘로 한국 광복군에 합류(1942) |

신간회

| | |
|----|--|
| 결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우회 선언을 계기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의 연합 → 회장에 이상재 선출, 각지에 지회 설치 3대 강령: 정치적·경제적 각성 촉진, 민족의 단결 강화, 기회주의 일체 부인 |
| 활동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국 순회 강연회·연설회 개최, 농민·노동·여성·형평 운동 등 지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하고 대규모 민중 대회 계획 |
| 해소 | 새로운 지도부가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협력하려 하자 내부 갈등 발생, 국제 공산주의의 노선 변화로 해소(1931) |

의열단과 한민애국단

| | | |
|--------|----|--|
| 의열단 | 활동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김원봉 등을 중심으로 만주에서 비밀 결사로 조직(1919) 신채호가 작성한 '조선 혁명 선언'을 활동 지침으로 삼음 일제의 주요 인물 처단, 식민 통치 기관 파괴 등의 의거 활동 전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김익상: 조선 총독부 폭탄 투척 김상옥: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나석주: 조선 식산은행, 동양척식 주식회사 폭탄 투척 |
| | 변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배경: 개별적인 의거 활동의 한계 인식 → 조직적이고 대중적인 무장 투쟁 준비 내용: 김원봉 등의 단원들이 황푸 군관 학교에 입학 → 조선 혁명 군사 정치 간부 학교 설립 → 민족 혁명당 결성 주도 |
| 한민 애국단 | 결성 |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김구가 상하이에서 결성(1931) |
| | 활동 | 이봉창이 도쿄에서 일왕 암살 시도(1932), 윤봉길이 상하이 흥커우 공원에서 의거(1932, 시라카와 대장 등 사실) → 중국 국민당의 대한민국 임시 정부 지원 계기 |

| | |
|-------|--|
| 노동 운동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920년대: 임금 인상과 노동 조건 개선 등 요구 → 원산 총파업(1929, 문평 라이징선 석유 회사) • 1930년대: 일본 제국주의 타도 등 주장 → 혁명적 노동 조합 중심 비합법적인 폭력 투쟁으로 발전 |
| 농민 운동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920년대: 소작료 인하, 소작권 이동 반대 등 요구 → 암태도 소작 쟁의(1923, 지주 문재철) • 1930년대: 토지 개혁 등 주장 → 혁명적 농민 조합 중심의 비합법적인 폭력 투쟁으로 발전 |
| 여성 운동 | 근우회 결성(1927): 신간회 자매 단체, 기관지 「근우」 발행 |
| 소년 운동 | 방정환, 김기전이 주도한 천도교 소년회 중심 , 어린이날 제정, 잡지 「어린이」 발간 |
| 형평 운동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 추구 • 조선 형평사 결성(1923): 진주의 백정들이 주도, '계급 타파', '모욕적 칭호 폐지' 등을 주장 |

| | |
|-------|---|
| 삼국 시대 | 지증왕 13년(512) 이사부가 우산국 정복 |
| 조선 시대 | 숙종 때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가 항의 → 에도 막부로부터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받음 |
| 대한 제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(1900): 대한 제국이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선포 • 러·일 전쟁 중 독도를 불법적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(1905) |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| 조선 건국 동맹 기반 결성, 여운형·안재홍 중심 → 전국에 지부 설치, 치안대 조직, 조선 인민 공화국 선포(1945. 9.) 후 약화 |
|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(1945. 12.) | 민주주의 임시 정부 수립, 미·소 공동 위원회 설치, 최고 5년 기한 4개국(미국, 소련 등)의 한반도 신탁 통치 결정 → 좌우익의 대립 격화 |
| 제1차 미·소 공동 위원회 (1946. 3.~5.) | 민주주의 임시 정부 수립 및 신탁 통치 문제 논의 → 협의에 참여할 대상을 둘러싸고 미국과 소련의 입장 차이 → 협의 결렬, 무기 휴회 |
| 좌우 합작 운동 (1946 ~ 1947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배경: 제1차 미·소 공동 위원회의 무기 휴회, 이승만의 정읍 발언(단독 정부 수립 주장) • 전개: 여운형과 김규식 주도, 미군정의 지원으로 좌우 합작 위원회 결성 → 좌우 합작 7원칙 발표(1946. 10.) → 여운형 암살 등으로 실패 |
| 한반도 문제의 유엔 상징 | 제2차 미·소 공동 위원회 결렬 →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상징 → 유엔 총회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 실시 결의 →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 내한 → 소련이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입북 거부 → 유엔 소총회에서 '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지역의 총선거' 결의 |
| 남북 협상 (1948. 4.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 정치 회담 제안 → 김구, 김규식의 평양 방문 • 단독 정부 수립 반대 등을 담은 공동 성명서 채택 → 남북한 각각 단독 정부 수립 |
| 제주 4·3 사건 (1948) | 제주도 좌익 세력 등이 5·10 총선거를 앞두고 무장봉기 → 제주 3개 선거구 중 2곳에서 선거 무효,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제주도민의 희생 발생 |
| 5·10 총선거(1948) | 제헌 국회의원 선출(임기 2년), 제헌 헌법 제정(김구, 김규식 등 불참) |

| | |
|-------|---|
| 배경 | 미·소 양군 철수함, 애치슨 선언(1950) , 북한의 전쟁 준비(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음) |
| 전개 과정 | 북한군의 무력 남침(1950. 6. 25.) → 서울 함락(6. 28.) → 국군과 유엔군의 낙동강 방어선 구축(최대 남진선) → 인천 상륙 작전(1950. 9. 15.) → 서울 수복(9. 28.) → 국군의 38도선 돌파(1950. 10. 1.) → 압록강 유역까지 진출(최대 북진선, 중국군 참전(1950. 10. 25.) → 흥남 철수(1950. 12.) → 1·4 후퇴(1951. 1. 4.) → 포로 송환 문제로 정전 협정 지연 → 정전 협정 조인(1953) |
| 영향 | 이산가족 발생, 남북 간 적대감 심화, 한·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(1953. 10.) |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<p>5·16 군사 정변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박정희를 중심으로 일부 군인들이 정변을 일으켜 정권 장악 → 국가 재건 최고 회의 설치,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추진 •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를 골자로 하는 개헌 단행 → 민주 공화당 후보 박정희가 대통령 당선(1963) |
| <p>박정희 정부</p>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한·일 국교 정상화(1965):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 확보 필요 → 한·일 회담 반대 시위 (6·3 시위, 1964) → 한·일 협정 체결 2. 베트남 파병(1964~1973): 미국과 브라운 각서(1966)를 체결하여 군사적·경제적 지원 받음 3. 3선 개헌(1969): 대통령 3회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안 편법 통과 → 박정희 당선(1971) 4. 유신 체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성립: 비상 계엄령 선포와 국회 해산 → 유신 헌법 제정(1972, 대통령 간선제, 대통령 중임 제한 조항 삭제, 대통령에게 긴급 조치권·국회 해산권·국회의원 3분의 1 추천권 부여) →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박정희를 대통령(임기 6년)으로 선출 - 탄압: 인혁당 사건(1975) - 중앙 정보부가 간첩 사건 조작, 사형 집행 - 붕괴: 제2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 위기 고조, YH 무역 사건에 항의하던 김영삼이 국회의원직에서 제명 → 부·마 민주 항쟁 발생 → 박정희 대통령 피살(10·26 사태, 1979) 5. 경제, 사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960년대: 제1, 2차 경제 개발 계획,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 파견 - 1970년대: 제3차 경제 개발 계획, 두 차례의 석유 파동(1973, 1978) → 중동 건설로 극복, 포항 종합 제철소 준공(1973), 새마을 운동(1970), 장발·미니스커트 단속 |

| | 전두환 정부 | 김영삼 정부 |
|----|---|--|
| 성립 | 신군부 세력이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 설치 →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전두환 대통령 선출함(1980. 8.) → 7년 단임의 대통령제 개헌 →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선출(1981. 2.) | 노태우 정부 시기 3당 합당을 통해 민주 자유당의 창설, 민주 자유당 소속의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 → 문민정부 출범 |
| 정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언론 통제(언론 통제법, 언론 기본법 제정, 보도 지침), 강압 통치(삼청교육대 운영) 야간 통행금지 해제, 두발·교복 자율화, 해외 여행 자유화, 프로야구 출범 등 유화 조치를 취함 |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전두환·노태우 구속, 지방 자치제 전면 실시 |
| 경제 | 1980년대 중반 3저 호황(저달러, 저금리, 저유가) 의 상황 속에서 자동차, 철강 산업 등 발달 |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 전면 시행(1993), 경제 협력 개발 기구(OECD) 가입(1996), 외환 위기 발생으로 국제 통화 기금(IMF)에서 긴급 금융 지원을 받음(1997) |

4·19 혁명, 5·18 민주화 운동, 6월 민주 항쟁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|
| 4·19 혁명 (1960) | 배경 | 1960년 정·부통령 선거에 이승만과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 3·15 부정 선거 자행 |
| | 전개 및 결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개: 마산에서 3·15 부정 선거 규탄 시위 발생 → 시위 중 실종된 김주열 학생의 시신 발견 → 전국으로 시위 확산 → 경찰이 시위대에 발포하여 다수의 사상자 발생, 비상계엄령 선포 → 대학 교수단의 시국 선언문 발표 →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성명 발표 • 결과: 허정 과도 정부 수립 →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 구성을 골자로 한 개헌 단행 |
| 5·18 민주화 운동 (1980) | 배경 | 전두환 등의 신군부 세력 이 12·12 사태(1979)로 권력 장악 → 1980년 시민과 학생들이 신군부(전두환) 퇴진과 유신 헌법 폐지 요구 →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|
| | 전개 및 의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개: 광주의 학생과 시민들이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하며 시위 → 계엄군이 무차별 폭력으로 진압 → 학생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민군 조직 → 계엄군이 시민군을 무력으로 진압 • 의의: 5·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됨 (2011) |
| 6월 민주 항쟁 (1987) | 배경 |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고조,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 확산 |
| | 전개 및 결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개: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→ 전두환의 4·13 호헌 조치 발표 → 시위 전개, 대학생 이한열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의식 불명 → 호헌 철폐 등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민주화 시위 발생 → 여당 대표 노태우가 6·29 민주화 선언(대통령 직선제 개헌) 발표 • 결과: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 단행 |

박정희, 전두환, 노태우, 김대중, 노무현 정부의 통일 정책

| | |
|--------|--|
| 박정희 정부 | 7·4 남북 공동 성명 발표(자주·평화·민족적 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 합의, 1972) → 남북 조절 위원회 설치 |
| 전두환 정부 |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·예술 공연단 교환(1985) |
| 노태우 정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회주의 국가에 문호 개방(북방 정책) •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(1991),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·협력에 관한 합의서(남북 기본 합의서) 채택(1991),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발표(1992) |
| 김대중 정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금강산 관광 사업 시작(1998) • 제1차 남북 정상 회담(2000) → 6·15 남북 공동 선언 발표(연합제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), 경의선 철도 연결 공사 시작, 개성 공업 지구 건설 합의,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교류 확대 |
| 노무현 정부 | 제2차 남북 정상 회담(10·4 남북 공동 선언 발표, 2007) |

| | |
|-----|--|
| 진주 | 임진왜란(진주성 전투, 김시민 장군), 형평 운동(백정) |
| 청주 | 상당산성, 직지심체요절(홍덕사), 용두사지 철 당간(준풍 연호) |
| 평양 | 장수왕의 평양 천도,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, 대성 학교, 조만식이 물산 장려 운동 시작, 강주룡 을밀대 시위, 물산 장려 운동(조만식) |
| 개성 | 고려 수도(개경), 만월대, 선죽교(정몽주), 만적의 봉기 모의, 송상 근거지, |
| 강화도 | 부근리 고인돌, 몽골 침입 때 임시 수도, 외규장각, 병인 양요, 신미 양요 발생지, 최초의 근대적 조약 체결(강화도 조약) |
| 제주도 | 고산리 유적, 향파두리 유적(대몽항쟁), 제주 4·3 사건 |
| 안동 | 고창 전투(왕건), 봉정사 극락전, 공민왕이 홍건적을 피해 안동으로 피란, 도산 서원(이황), 병산 서원(유성룡) |
| 대구 | 국채 보상 운동, 2·28 민주 운동 |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설날 (음력 1월 1일) | 세배, 윷놀이, 연날리기 |
| 대보름 (음력 1월 15일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밤, 호두, 잣 등을 깨우는 부럼깨기 • 귀밝이술을 마시고 오곡밥을 지어 먹음 • 줄다리기, 지신밟기, 달집 태우기, 쥐불놀이 |
| 한식 (동지 이후부터 105일 되는 날) | 불과 연기 금지, 찬 음식 먹기, 손 없는 날 |
| 삼짇날 (음력 3월 3일) | 노랑나비 날리기, 화전 |
| 단오 (음력 5월 5일) | 수리날, 천중절 등으로 불림, 그네뛰기, 널뛰기, 씨름, 임금이 신하들에게 부채를 나누어 줌, 창포를 삶은 물로 머리를 감음 |
| 칠석 (음력 7월 7일) |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로 알려져 있음 |
| 백중일 (음력 7월 15일) | 머슴에게 일손을 쉬게 하고 돈을 주어 하루를 즐기게 함, 풍년 기원 |
| 추석 (음력 8월 15일) | 중추절, 송편, 한가위·중추절로 불림 |
| 동지 (양력 12월 22일) | 팥죽을 쑤어 먹음 |